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JP 모건, “연준, 예상외로 하반기 최종 금리 6%로”
- Bloomberg: 뉴욕 제조활동 지수 2020년 5월 이래 최저

[미국 금융]

- Bloomberg: 오일 선물계약 건수 다시 회복... 중국 재오픈 탓
- Bloomberg: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M&A 슬럼프에 따른 고비용으로 고전

[글로벌 경제]

- WSJ: 다보스 리더들, “경기 침체 가능성에 우려한다”
- WSJ: 중국 경제, 성장 둔화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
- CNN Business: 중국 인구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미국 생활]

- WSJ: 인플레이 시대, 적당한 옷 가격은?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모간스탠리, 달러 전망치 하향... "세계 경제 전망 낙관적"
- 한경: 골드만삭스, 4분기 10년만 최대 '어닝쇼크'...순익 66%↓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근로자들, 노사 간 대규모 재조정 준비해야
- WSJ: 높은 물가에 소비 민감, 인플레이 완화에 도움
- CNN Business: 베스트바이 던킨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변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Don't Get Blindsided By Cooling Prices, JPMorgan's Michele Says

JP 모건, “연준, 예상외로 하반기 최종 금리 6%로”

- 미 금리가 금년 6월에 고점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JP모건의 chief investment officer는 입장이 다르다. Bob Michele은 연준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인플레이와의 싸움을 계속해 최종 금리가 6%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이런 가능성을 여전히 3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받아들이 수 있는 리스크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이라는 것.

- 한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오는 6월에 정점 4.9%를 찍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Activity Plunges to Lowest Since May 2020

뉴욕 제조활동 지수 2020년 5월 이래 최저

- 신규 주문과 선적(shipments) 활동이 이 무너졌다. 뉴욕 연방은행의 전체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1월 들어 22포인트 낮아진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 제로 미만은 위축을 나타낸다.
- 이는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에서 보여준 비관적인 수준의 두 배 이상 나쁜 상황이라는 것. 지난 6개월 중에 5개월간 위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 금리 인상으로 제조 부문에 대한 고통이 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이번 발표 지표는 뉴욕주 생산업자가 지불하고 받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 인플레이션 부담이 추가로 둔화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aders Race Back Into Oil on Optimism Over China Reopening

오일 선물 계약 건수 다시 회복... 중국 재오픈 탓

- 트레이더들의 오일 선물 계약 건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중국 경제가 재개되고 코로나 이동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오일 추가 수요를 자극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른바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이 5백24만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 20일 이후 최고치. (미결제약정은 새로 선물(先物) 등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했지만 아직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물량으로 향후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석유 시장은 다른 원자재 시장가 더불어 따뜻한 겨울 동안 북반구 에너지 수요가 붕괴된 이후에 초기의 약세를 떨쳐내고 중국이 다가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man, Morgan Stanley Are Weighed Down by High Costs as M&A Slumps**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M&A 슬럼프에 따른 고비용으로 고전**

- 더 높은 비용과 거래의 급락이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 은행 두 곳의 분기 실적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Goldman Sachs Group Inc.와 Morgan Stanley의 주식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모건스탠리가 예상을 상회하고 M&A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예측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인다.
- 반면에 골드만삭스 주가는 2022년 마지막 3개월 동안 투자은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더 큰 비용 절감과 정리 해고가 올 것으로 보인다.
- 물론 모건스탠리도 매출이 작년 대비 거의 40% 감소하며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비이자 비용(non-interest expenses)이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산 관리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소득 증가 이익을 얻었다.
- 오늘 화요일 11:45am 현재 골드만삭스 주가는 6.88% 낮은 \$348.26에서 거래되고, 모건 스탠리는 오늘 오전 6.45% 오른 \$97.66에서 거래 중이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WSJ: At Davos, Mood Is Somber as Many CEOs Question Economic Outlook****다보스 리더들, “경기 침체 가능성에 우려한다”**

- ‘중앙은행들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세계가 타격을 입을 것 같네’ 이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 이로 인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숨을 멈추고 불확실한 해 때문에 지출을 중단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상승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부 비즈니스 리더들이 바라는 것처럼 경제 연착륙의 전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
-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은 많은 기업들이 신중을 기해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도 경우에 따라 줄인다고 말했다. 그러니 일부 비즈니스 리더들은 주요 국

가들이 침체를 피할 경우 올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 비용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마디로 다보스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침울한데 미국과 영국의 침체가 얇고 짧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WSJ 기사

WSJ: China's Economy Faces Deeper Problems Than Its Slowing Growth 중국 경제, 성장 둔화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

-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률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사회적 불평등 증가가 향후 수십 년간 중국 경제 성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인구는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85만명 감소한 14억 1천2백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세계 경제가 의존해온 방대한 노동자 풀이자 소비자 시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중국은 경제 활성화와 핵심 산업 자급자족을 위해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리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해왔다. 중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295%인 5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다.
- 하지만 중국이 자립하고자 애쓴 반도체, 재생에너지, 의약품 등 핵심 분야 산업은 낭비와 부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CNN Business: China records first population decline in 60 years 중국 인구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 중국 경제가 향후에 둔화되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 60여 년 만에 작년에 인구가 줄 것이다.
- 작년에 인구는 14억1천1백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85만명 줄었다고 중국국가통계국은 오늘 화요일 밝혔다.
-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모택동 주석의 대약진운동으로 촉발된 큰 기근이 발생한 지난 1961년 이래 처음이다. 인구가 앞으로 줄게 되므로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과 국내 수요가 어두운 상황이다.
- 출생률도 1,000명당 6.77명으로 1년 전 7.52명에서 떨어졌고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기혼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생활]

WSJ: How Much Should Your Clothes Cost?**인플레이션 시대, 적당한 옷 가격은?**

-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의류 가격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류 공급망 전문가는 현재 원자재, 노동력, 운송, 물류비용이 모두 올라 2023년 소매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품목별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할까?

1. 캐시미어 스웨터: \$325↑ / 캐시미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가장 내구성과 질이 좋은 A등급의 캐시미어 제품을 구입하려면, A등급을 명시한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2. 옥스퍼드 셔츠: \$125(미국산은 \$175) / 단순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셔츠는 시공 과정과 옷감을 중심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산 셔츠는 50달러 이상 더 비쌀 것이다.

3. 청바지: 유명 브랜드 \$100, 독립 제조사 \$300 / 세계적인 수요가 있는 청바지의 특성상 원재료는 단순하지만, 제조 공정이 대륙을 넘나들며 복잡해진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원리에 의해 대형 브랜드 제품이 더 저렴할 수 있다.

4. 가죽 벨트: 최대 \$100 / 벨트를 만드는 것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이 최종 가격을 좌우한다. 전문가는 100달러로도 최고급 가죽 벨트를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모간스탠리, 달러 전망치 하향..."세계 경제 전망 낙관적"
- 한경: 골드만삭스, 4분기 10년만 최대 '어닝쇼크'...순익 66%↓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orkers, Get Ready for the Great Rebalancing**근로자들, 노사 간 대규모 재조정 준비해야**

- 팬데믹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14.7%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 급격히 상황이 반전되며 지금까지 고용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갑'을 쥐고 있었다.

- 하지만 올해는 기울어졌던 노사 간 권력이 균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시간당 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적었고, 22만 3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어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요 지표들이 정상 범위로 내려가고 있다.
- 따라서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지금은 채용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황이 바뀌면서 빠르게 취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SJ 기사

WSJ: Shopper Rebellion Against Higher Prices Helps Slow Inflation 높은 물가에 소비 민감,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

- 많은 기업들이 연료비, 재료, 부품, 인건비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작년년부터 물품들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둔화되자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점차 멈추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소비자 구매가 줄었다는 것은 물가가 그들이 기꺼이 지불할 부담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IRI와 NPD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 장식품과 소형 가전제품 등의 단위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식음료 단위 매출은 3% 감소했다.
-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구매를 줄이고, 더 저렴한 필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Lululemon 등의 기업들은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으로 할인 폭을 늘리면서 마진에 압박을 받아 연말 쇼핑 시즌 예상보다 부진한 수익을 밝혔다.

WSJ 기사

CNN Business: Best Buy, Dunkin' and Starbucks changed their rewards programs. Then came the backlash 베스트바이 던킨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변경

- '베스트바이에서 리워드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베스트바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가능하다'.
- 즉, 베스트바이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기 위해 구매비용을 리워드 포인트로 적립하려면 앞으로 반드시 베스트바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물론 베스트바이는 배송 비용을 무료로 할 경우 과거에는 35달러 이상을 구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격 제한이 없다는 것.
-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적립 포인트를 위해 베스트바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이 같은 변경 조치를 싫어하면서 이곳에서의

쇼핑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던킨 도너츠, 스타벅스 등도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기준을 높였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중 늘어나는 광고 및 기술 비용과 신용카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연초 국채금리 하락에 증시도 상승...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미국 금융시장에서 연초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말 3.826%였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첫째 주 3.570%를 기록 후 둘째 주에는 3.510%로 내려온 상태다.

WSJ은 아직 올해 국채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너무 이르고 어려움을 예측하는 의견도 많다면서도, 지금까지의 국채 금리 하락 및 국채 가격 상승은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덕분에 올해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각각 4.2%, 5.9% 오르는 등 증시를 비롯한 다른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